



## 편집인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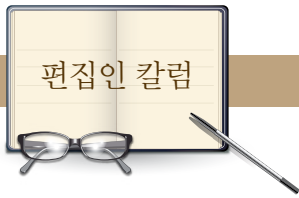
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계절의 여왕은 역시 5월입니다. 연두에서 연록으로, 다시 초록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자연의 동영상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요즘같이 좋은 날, 점심 때면 연구실 앞 우면산 산책로에서 숲과 햇볕과 흙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감동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현장은 한가하게 자연을 즐길 처지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통상 집권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지난 5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부가 집권 초기 때처럼 선제적으로 의료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와 의료계간의 전선은 어느 때 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치 사자 무리가 물소떼와 대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서서히 잠식되어 왔던 정부의 힘을 다시 회복하려는 듯 합니다. 힘의 균형을 되찾는 데에는 용기와 불굴의 투지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할 수 있는 정직함,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년 4월 의약분업 이래로 가장 큰 폭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약업계가 법적 쟁송의 일전을 불사하면서 시간만 끌지 않을까 회의적이었지만, 약가의 일괄인하를 단행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약가제도의 근원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대가 찬성 보다 많아 통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보였던 숙제들이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독심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두차례 패퇴하  
였지만, 절차적 하자를 개선하여 다시 수가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쯤에 수가인하에 성  
공하리라 예상됩니다.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명칭을 여러 차례 바꾸어가며 협의를 진행시켰고,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찬성함에 따라 의료계 내부의 일치된 행동  
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1997년부터 추진되었던 해묵은 숙제인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  
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7개 포괄수가제의 7월 병원 전면 확대는 이미 예정  
되어 있고, 이어 신포괄수가제의 지방의료원 적용에 이어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공  
개하였습니다. 병원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의료시장에서 그 덩치를  
계속 키우고 있는 의료장비와 치료재료의 관리가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리와 마  
찬가지로 업계와 또한번의 큰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간의 전선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복하고 있던 해묵은 숙제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슈화되고 정책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모  
든 정책이슈들을 한꺼번에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기에도 힘에 부칠 것입  
니다. 지혜로운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그 방안일까요? 전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 속에서 옵니다. 힘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긴  
장해야 합니다. 해이해 질 때에 늘 문제가 깊게 되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시장의 질서를 지키  
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  
고 평화는 깨어 집니다.